

<담배에 관한 나의 생각>

요즈음,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들 사이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나 레스토랑에서도 볼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눈에 띕니다. 심지어 중학생, 고교생들까지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담배가 어느새 대중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피우면 괜찮고, 여자가 피우면 안된다는 생각이 사회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남자가 담배를 피우면 멋있어 보인고, 보통 인정됩니다. 반면, 여자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상히 여겨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는 기호품인데말입니다. 남녀랄 것 없이, 자신이 바라는(원하는) 점이라면,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안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내세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에 차별을 둔다는 점입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 해로우니까 절대로 안 되!’ 라고 금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다고 여겨 행동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결과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누구나 담배를 피울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각자의 권리를 존중해 준다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운운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담배도 과자나 사탕처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